



한약분쟁은 1993년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작됐다.

그해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약사들에게 "한약 조제권 박탈"이라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3여년 만에 정지상태에 들어간다.

당시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을 맡아 약사들의 선봉에 서서 한약분쟁을 이끌었던 이범구 성균관약대 겸임교수(마포구 근화사약국)는 약사법에서 약사의

업무중 한약을 제외한 것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우리가 한약분쟁에서 잃은 가장 큰 것은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97학번 이후부터는 한약을 다루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한약학을 제대로 강의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성균관약대가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개 약학대학이 한약학기초이론, 본초학, 방제학 등 3개 한약과목을 강의하게 됐어요. 또 한약을 전혀 모르던 전국 2만5000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약학 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뿌리를 잊고 있었

죠. 한약분쟁을 통해 새롭게 한약학 이론이 정립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수는 한의사 측도 한약분쟁을 통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고 보았다.

"한의사들이 얻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한약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만약 한약분쟁이 없었다면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한약을 많이 지어 먹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

약 붐이 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약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의사들도 잘 알 것입니다."

1983년부터 성균관약대에서 한약학을 강의해 오던 이 교수는 1993년 한약분쟁이 일어나면서 약사회 대표로 나서게 된다. "누구도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손들고 자진해서 나서게 됐다"는 그는 "한약을 놓고 한의사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며 "오랜 기간 학계에 몸 담아온 만큼 한약에 대한 이론이 정립됐다고 판단해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5월 국회에서 열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경희약대 육창수 교수와 함께 약사회 대표로 나섰는데, 7시간을 넘게 사투



▲한약파동 당시 한약위원장을 역임한 이범구 박사

과업처럼 비건설적인 방법을 버리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제 등 '숨겨진' 한약의 활용이 약국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약국에

서 한약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약만이 한약이 아니에요. 환제, 액제, 활명수, 과립제 모두 한약 제제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면 약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이론을 통한 신약개발도 많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애경기자 akmoon@kpanews.co.kr

잊었던 한약학 이론 정립은 소득

한약 신뢰도 약화는 모두가 잃은 것

를 벌였죠. 한의대 학생들이 강제로 입을 막다시피 했으니깐요. 결국 우리가 이겼고, 1라운드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기각됐어요."

"한의사와 약사는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미지가 굳혀졌다"는 이 교수는 "이 같은 분쟁이 다시 발생한다면 데모나

서 한약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약만이 한약이 아니에요. 환제, 액제, 활명수, 과립제 모두 한약 제제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면 약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이론을 통한 신약개발도 많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애경기자 akmoon@kpanews.co.kr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송 경 희

부회장 김 명 자

부회장 최 효 순

부회장 이 진 희

부회장 김 상 옥

부회장 엄 태 순

총 무 김 옥 희

외 동문일동